



바이옌진흥원, '사회공헌 기부 바자회' 개최

전북바이옌진흥원이 17일 진흥원 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사회공헌 기부 바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진흥원 임직원들이 기부한 의류, 생활용품, 도서, 소형가전 등 약 200여 점의 물품을 임직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기부와 판매를 동시에 실천하는 '참여형 사회공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바이옌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바자회는 단순한 물품 판매가 아니라, 임직원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남원 도통동, 사랑나눔장터 개최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광장 앞에서 '도통사랑나눔장터'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주민들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하고, 이를 재판매·교류하는 장을 마련한 것으로, 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나눔 캠페인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물품 기부로 마련된 장터의 수익금을 다시 기부함으로써 기부의 선순환을 조성하고, 불용 물품을 재사용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행사장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2025 남원국제 드론제전 △제33회 흥부제 △2025 남원국가유신이행 등 남원시 10월 3대축제를 홍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머리 예쁘게 하는 날 사업 확대 운영

남원시 죽향동(동장 임정숙)은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머리 예쁘게 하는 날'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죽향동의 우수 시책인 이 사업은 1일 1가구 소용행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해 쉽게 외출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복지와 찾아가는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주민센터로 (063-620-4746) 연락하면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관내 업체인 '오성 이음원'과 '효승이 미용실' 대표가 매월 꾸준히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으며, 최근에는 1일 1가구 소용 행정 과정에서 만난 관내 의류 가게 '신주꾸' 대표가 미용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오며 봉사 인력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사랑듬뿍탕 Day' 나눔 행사 '첫 문'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는 지난 9월 17일, 관내 '갈비분가' (대표 한상웅) 후원으로 627 경로당에 점심으로 갈비탕을 전달하는 '사랑듬뿍탕 Day' 나눔 행사 첫 문을 열었다.

당초 어르신들을 식당으로 초청해 대접할 예정이었으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정성껏 끓인 갈비탕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어르신이 함께해 따뜻한 갈비탕을 나누며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한 어르신은 "따뜻한 갈비탕을 대접받으니, 힘이 난다"라며 감사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몽골 제1산부인과병원과 협약

국제 의료기술 교류·환자 진료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북대학교병원이 몽골 국립 제1산부인과병원과 국제적 의료 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병원 본관 3층 온고홀에서 진행됐으며, 지난 3월 몽골 제1산부인과병원이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한 계기로 성사됐다. 행사에는 몽골 측 남오치르 바트사리칸 병원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으며, 전북대병원에서는 양종철 병원장과 김인희 진료부원장, 이상록 대외협력실장, 유인찬 국제 진료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술과 진료 경험 교류·연수 프로그램 운영 △공동연구 추진 등 구체적인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의 여성 및 모자보건 분야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 측 남오치르 병원장은 "전북대병원과의 협약은 몽골 의료 수준 향상과 환자 진료 질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산부인과 분야에서 의료기술 교류



와 공동연구, 의료진 연수를 통해 양 병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의료기술과 인력을 나누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환자 중심의 의료와 연구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3분기 혁신 주인공... 김태준 주무관·성소연 보건연구사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3분기 '자랑스러운 우리의 혁신 주인공'으로 사회재난과 김태준 주무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성소연 보건연구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주제는 해피 바이러스 주인공으로, 직원 간 화합과 조직 활력을 높인 MZ세대 공무원 2명이 뽑혀 주목을 끌었다.

김태준 주무관은 '곰돌이 푸' 같은 푸근한 인상과 웃음을 잃지 않는 태도로 도민 안전 업무를 맡아왔다. 시기별 시설물 점검, 사고 현장 상황 관리, 민간에할단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선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배우고 부서 분위기를 정비하는 데 앞장섰다.

성소연 보건연구사는 밝은 미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직원들의 화합을 이끈 분위기 메이커다. 휴게 공간 확충과 소규모 소용 행사를 마련해 복지를 챙기는 한편, 식약품 안전 관리와 최신 분석 기술 공유로 조직의 전문성을 높였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이번 혁신 주인공은 앞으로 도를



이끌어갈 MZ세대 직원들의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줬다"며 "업무와 부서 화합을 모두 훌륭히 이끈 두 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 제주 전국회원대회 참석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회장 김옥봉)는 지난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에 김옥봉 회장을 포함한 29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주관하여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행사는 김지환·최다혜 아나운서의 사회로 제주도립무용단의 식전 공연과 가수 양지은의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대회기 입장, 행동강령 낭독, 환영사, 대회사, 정부포상,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대회기 이양,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진안군협의회는 전국회원대회가 열리는 자리에 진안군의 대표 축제인 흥산축제 홍보에 적극 앞장섰다.

참가자 회원이 흥산축제 티셔츠를 입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하고 홍보부채 및 흥산캔디를 배부하며 흥산 축제를 알렸다.

행사장은 물론 주요 관광지를 이동할 때마다 단체 빨간 티셔츠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더운 날씨에 부채와 캔디를



건네며 축제 참여를 권유했다.

김옥봉 회장은 "이번 전국회원대회를 통해 회원 모두 진안흥산축제 홍보 대사란 마음으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며 "전북 회원들은 홍보용 부채, 캔디, 제리 등을 나누어 줄 때는 너무나너무 좋아하며 꼭 참석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20일 '장애이해퀴즈 도전! 가족 골든벨' 개최

남원시와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강당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5년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이해퀴즈 도전! 가족 골든벨'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예비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생 자녀와 보호자 50팀, 총 140여 명이 참가, 퀴즈대회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OX 퀴즈 객관식·주관식 문제, 폐지부활전 등 다양한 형식의 퀴즈대회가 펼쳐지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골든벨상(상품권 3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장애체험, 인식개선 전시회, 인생네컷 촬영, 이벤트 게임 등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 성황리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2회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책 행사가 성황리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예상보다 100여 명이 많은 300여 명의 아동과 가족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는 오전으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여간이 국악 신동과 팝페라 그룹의 무대 공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김제시 인종 퍼포먼스, △에어비문스, 슛돌이 축구왕 놀이 등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내에서 운영됐다.

또한 당초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었던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수변공원 특별한 산책은 현장에서 예약자들의 동의를 받아 짧은 코스로 변경해 운영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은행, '전북현대모터스FC 팬 사인회'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17일 전북은행 본점 1층 JB스퀘어에서 2025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전북현대모터스FC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팬 사인회는 K리그 최다 우승(9회)과 FA컵 5회 우승을 기록하며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FC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문화행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박진섭, 송범근, 이승우, 김진규, 전진우 등 주전 선수들이 참여했다.

팬 사인회 참가자는 전북은행 측뱅크 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최종 100명이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 선수들은 팬 한 명 한 명에게 사인을 해주고 인사를 나누며 친근하고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팬들은 선수들과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며 뜨거운 환호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상근 기자



순창군, 제1회 양지천 사진공모전 수상작 선정

순창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양지천을 배경으로 한 '사계절 양지천에 반하다' 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17일 공개됐다.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45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는 사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맡아 창의성, 표현력, 주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강은옥 씨의 '꽃길 위 불꽃의 향연'이 차지했다. /순창=이양원기자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따뜻한 동행 토닥토닥 멘토링'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미옥)는 초기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따뜻한 동행 토닥토닥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초기 취업자와 유사 직종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멘토를 1:1로 매칭,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직장인으로서의 비전 형성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9월 16일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12명의 멘토를 사전교육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천지 전주교회, 말씀대성회 성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 전주교회(지파장 박종렬)는 '전주 2025 말씀대성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계시록 성취 실상 증거'라는 주제로 울라 반기 전국 말씀대성회 시작에 발맞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난 13일 진행됐다.

현장에는 종교인과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해 요한계시록의 깊이 있는 해석과 성취 실상을 귀 기울여 경청했다. 평소 가졌던 성경에 대한 의문점들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강의자로 나선 박종렬 지파장은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성취 실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적'과 '씨워' 이겨라. 이기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했다.